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로스쿨 POST-LEET 전략도

리트바이블로 탄탄하게



INTERVIEW

로스쿨 면접 바이블



로스쿨 면접 바이블

제목	The LEET BIBLE 로스쿨 면접 바이블
발행일	2026년 9월 21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변호사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정찬빈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59,800원
ISBN	979-11-996093-3-4(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교재구매 및 더 많은 학습정보는
리트바이블 공식 홈페이지에서!

leetbible.com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현재 무단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단 공유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좋은 교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정식 교재로 공부하는 문화, 함께 지켜 주십시오.**

-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ONTENTS

들어가며 6

1.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와 면접까지 전부 연결되는 LEET식 사고 6
2. 말로 실행하는 형식적 사고 7
3. 이 책의 사용법 10

CHAPTER 1 면접관의 눈과 평가의 세 가지 차원 14

1. 면접 준비의 어려움과 훈련의 방향 16
 2. 듣는 사람을 고려한 답변의 구성 23
 3. 면접 답변의 세 차원 : 형식, 내용, 태도 29
 4. 첫 번째 차원, 형식과 답변의 구조 32
 5. 두 번째 차원, 내용과 판단의 실질 38
 6. 세 번째 차원, 태도와 전달 47
 7. 답변 구조와 평가의 관계 53
 8. 반복 가능한 판단 절차와 면접 훈련 54
- 마무리 59
- 마무리 쉬는 코너 : 면접에서 먼저 만나는 법학적 사고 : 제한되는 자유를 먼저 특정하는 일 63

CHAPTER 2 질문의 실행과 답변의 재료 74

1. 질문의 요구와 답변의 출발점 76
 2. 면접에서 반복되는 사고 작업 81
 3. 여러 사고 작업이 결합된 질문 86
 4. 판단을 만드는 순서와 답변을 말하는 순서 89
 5. 판단 차원의 종류에 따른 근거의 구분 98
- 마무리 105
- 마무리 쉬는 코너 : 면접에서 먼저 만나는 법학적 사고 : 자유 제한의 정당화와 과잉금지원칙 108

CHAPTER 3 논거를 찾고 확장하는 기본적 사고틀 122

1. 논거 탐색의 세 차원 : 국가, 사회, 개인 124

2. 준비시간의 활용 : 질문 분석과 답변 구조 설계	140
3. 지원 학교의 면접 방식 확인	151
마무리	155
마무리 쉬는 코너 : 면접에서 먼저 만나는 법학적 사고 : 평등 위반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157

CHAPTER 4 논의의 평면적 변수의 활용 :

하나의 답변을 여러 판단축을 활용하여 확장하는 법 168

1. 판단 변수의 역할과 논거의 확장	170
2. 세 가지 탐색 차원과 판단 변수의 결합	175
3. 첫 번째 변수군 : 주체와 대상	182
4. 두 번째 변수군 : 시간	194
5. 세 번째 변수군 : 장소와 환경	203
6. 네 번째 변수군 : 비교의 기준점	214
7. 다섯 번째 변수군 : 권리와 보호이익	223
8. 여섯 번째 변수군 : 비용과 혜택의 귀속	234
9. 일곱 번째 변수군 : 목적과 수단과 결과	249
10. 여덟 번째 변수군 : 평등과 형평과 효율	264
11. 아홉 번째 변수군 : 개입의 강도와 대안	281
12. 열 번째 변수군 : 원칙과 예외	296
13. 열한 번째 변수군 : 책임	301
14. 열두 번째 변수군 : 절차와 결정 방식	319
마무리	336
마무리 쉬는 코너 : 면접에서 먼저 만나는 법학적 사고 : 사안의 적용과 포섭	348

CHAPTER 5 실제 질문을 답변으로 만드는 법 360

1. 질문 분석에서 답변 완성까지의 일곱 단계	362
2. 대응형 사고의 적용 : 제시문 독해와 자기 판단의 구분	382
3. 두 제시문이 제시되는 유형에 대한 준비	392
마무리	405

CHAPTER 6 실전 적용 : 다섯 가지 사고 기능의 훈련..... 408

1. 이 장의 사용법 : 실전 문제의 풀이와 반복 훈련	410
2. 첫 번째 기능 : 판단기준의 설정과 사실 변경의 검토	423
3. 두 번째 기능 : 지정된 당사자의 관점에 따른 판단	443
4. 세 번째 기능 : 반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의 연습	465
5. 네 번째 기능 : 공통 기준에 따른 제시문 간 관계 분석	489
6. 다섯 번째 기능 : 2분 즉답의 구성과 시간 배분	515
7. 연습 워크시트	531
마무리	538

CHAPTER 7 학교별 기출로 하는 실전 연습..... 542

1. 이 장의 사용법 : 시험 조건에 맞춘 실전 연습	544
2. 준비시간이 긴 제시문 면접 유형	547
3. 답안을 써서 낸 뒤 구술이 이어지는 면접	587
4. 여러 사례를 분류하고 같은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면접	596
5. 제시문의 원리를 낯선 사례에 옮기는 면접	612
6. 질문이 요구한 입장에서 답하는 면접	626
7.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답하고 앞선 발언을 반영하는 면접	653
8. 정책의 판단기준을 자신의 선택에도 적용하는 면접	678
9. 시간, 사실, 입장 변경을 통한 반복 연습	700
마무리	705

들어가며

1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와 면접까지 전부 연결되는 LEET식 사고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입니다. LEET를 치르고 자기소개서까지 마쳤다면, 이제 **POST LEET의 마지막 과정인 면접**이 남았습니다. LEET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긴 글을 읽고 정답을 골라야 했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 낼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면접은 앞선 두 과정과는 다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LEET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다시 읽고 여러 선지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자기소개서에서는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문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무엇을 말할지 정한 뒤, 그 판단을 바로 자신의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은 다시 지울 수 없고, 답변 도중 추가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 시사자료를 얼마나 읽어야 할지, 예상 질문을 몇 개나 준비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기 쉽습니다. 낯선 정책이나 제시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주제를 공부하고 찬반 논거를 미리 정리해 두려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질문을 이해하고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으며**, 익숙한 주제가 나와도 질문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좋은 답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익힌 사고를 면접에서 사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언어이해에서는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추리논증에서는 조건을 구조화하며 원칙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문항이 묻는 내용에 맞추어 경험을 선택하고, 자신의 역할과 판단이 드러나도록 사실을 배열했습니다. 질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고르고, 순서를 정하여 결론에 도착하는 작업은 면접에서도 반복됩니다.

다만 면접에서는 이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말로 수행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준비한 답변을 끝까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호한 표현을 다시 묻거나, 처음 세운 기준과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만드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판단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구별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찬반을 묻는지, 다른 정책과 비교하라는 것인지, 제시문의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집니다. 주제는 바뀌지만 질문의 요구를 확인하고, 기준을 세우고, 근거와 결론을 연결하는 사고는 반복됩니다. **예상 질문의 수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러한 순서를 익혀야** 처음 보는 질문에서도 답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연습하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답을 만드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많아졌을 때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반론을 받았을 때 자신의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며, 그 판단을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는 순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LEET에서 익힌 읽기와 판단, 자기소개서에서 반복한 선별과 배열을 이제 말하기로 이어 가겠습니다.

2 말로 실행하는 형식적 사고

The LEET BIBLE에서 반복하여 다루었던 형식적 사고는 이 책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면접 기술을 배우기 전에 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사고는 형식논리학의 기호를 사용하거나 모든 답변을 정해진 문구로 시작하고 끝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찾고, 그 판단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관련된 사례와 찬반 논거, 제시문의 문장과 개인적인 경험이 함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하게 느끼는 가치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답변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순서대로 말하기 전에 질문의 요구에 맞추어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이 하나의 판단을 요구하는지, 여러 요구를 동시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비교하라고 했다면 두 대상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라고 했다면 장단점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 근거가 떠올랐다면 서로 다른 이유인지 살펴본 뒤 결론을 만들고, 듣

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합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반복하여 체화하겠습니다.

말의 틀보다 먼저인 판단의 틀

형식적 사고를 답변의 틀을 외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는 실제 답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반형 질문에서는



비교형 질문에서는



대안형 질문에서는



그러나 구조만 외워서는 질문이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대안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준을 먼저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를 특정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제와 대안을 연결합니다. 답변의 형식은 질문이 요구하는 판단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근거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제에 찬성하면서 공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의 안전을 높이며, 공동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라면 표현은 셋이어도 **하나의 이유를 반복한 것**입니다. 반면 다음 답변에서는 이유를 세 개 나열하지 않아도 판단의 구분이 드러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에 찬성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용이 있지만, 제3자에게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의 정도가 낮거나 당사자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그 범위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자유를 제한하는 비용과 제3자의 위험을 구분하고, 위험의 정도와 영향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 판단합니다. 어떤 이유로 찬성하며 어느 경우에는 결론을 수정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라는 표현의 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을 실제로 수행했는지**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다 만든 뒤 보기 좋게 정리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생각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에서도 다른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내용을 많이 떠올리는 방법에 앞서, **어디에서 판단을 시작하고 어떤 조건에서 수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면접관이 따라갈 수 있는 사고의 순서

글은 앞부분을 놓치면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면접관은 지원자의 말을 시간의 순서대로 듣습니다.** 앞에서 결론과 기준이 드러나지 않으면 뒤의 사례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다른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는 여러 내용을 말했지만 결론과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니다. 해외 사례가 어떤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집행 가능성은 결론을 바꾸는 요소인지도 면접관이 추측해야 합니다. 반면 **결론을 제시하고 기준과 이유를 설명한 뒤 판단이 달라지는 조건을 덧붙이면**, 면접관은 지원자의 사고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와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첫째, 정당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집행과 우회행위 때문에 규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면접관은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각각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이 매끄럽거나 사례가 풍부하더라도 이런 구분이 없다면 판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이

조금 느리거나 잠시 생각하더라도, 결론과 근거가 구별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고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고, 현재 문장을 끝내면서 다음 문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결론과 근거, 예외를 구별하고 있으면 새로운 생각을 어디에 덧붙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론이 **사실관계를 지적하는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예외를 묻는지 구별해야** 처음부터 모든 판단을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사고를 익힌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떤 판단을 거쳐 결론에 도착했는지 설명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3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의 예시 답변은 판단의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합니다. 같은 질문에서도 기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조건이 추가되면 기존 결론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답변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답변을 만드는 순서를 직접 적용하며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판단의 순서 이해하기

처음 읽을 때에는 각 장에서 왜 그 순서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직 빠르게 답하거나 예시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서술어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밑줄을 긋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이 요구하는 행동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의 개수보다 차원의 구획을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판단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개별 근거의 중요도를 비교하고 결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를 검토하는 것도 자신의 입장을 곧바로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한 기준에서 반대 요소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 확인한 뒤에도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떤 문장을 외울지보다 질문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는 직접 답한 뒤 해설과 비교하기

구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읽는 순서를 바꿉니다. 본문에 질문이나 예시가 나오면 먼저 직접 답을 만든 뒤 해설을 확인합니다. 질문의 요구를 나누고, 제시문에서 필요한 자료를 고르고, 기준과 근거를 정하여 결론을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해설을 먼저 읽으면 이미 만들어진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면접장에서는 무엇을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본문의 설명과 자신의 판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A와 B를 효율성으로 비교했는데 책에서는 권리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느 쪽 결론이 맞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효율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서 그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권리 침해도 함께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책과 다른 결론이라도 근거가 타당할 수 있고, 같은 결론이라도 판단 과정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 내어 답하고 녹음으로 확인하기

머릿속이나 글에서는 정리된 답변도 실제로 말하면 근거가 섞이거나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녹음을 들어 보면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를 이해한 뒤에는 소리 내어 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녹음하거나 여건이 되면 촬영한 뒤, 답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잘한 것 같다가도 조금 버벅거렸다는 인상만으로 평가하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식, 내용, 태도를 구분하여 점검해야 수정의 방향이 보입니다.

형식에서는 답변의 배열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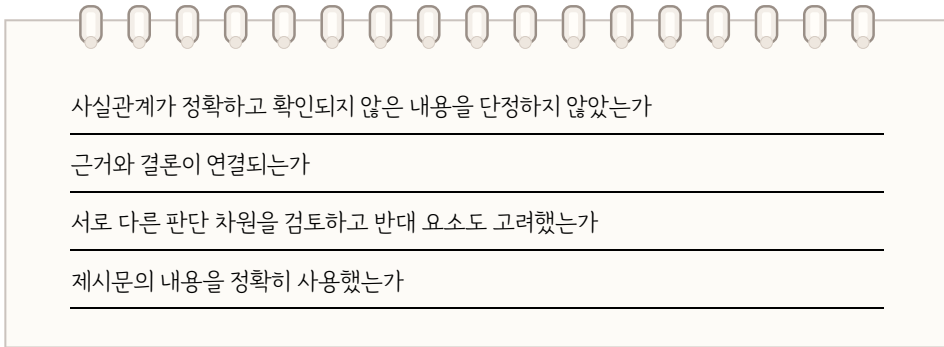
질문에서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답했는가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가

근거가 서로 구별되며 같은 이유를 반복하지 않는가

답변의 순서를 따라갈 수 있고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나는가

내용에서는 사용한 사실과 판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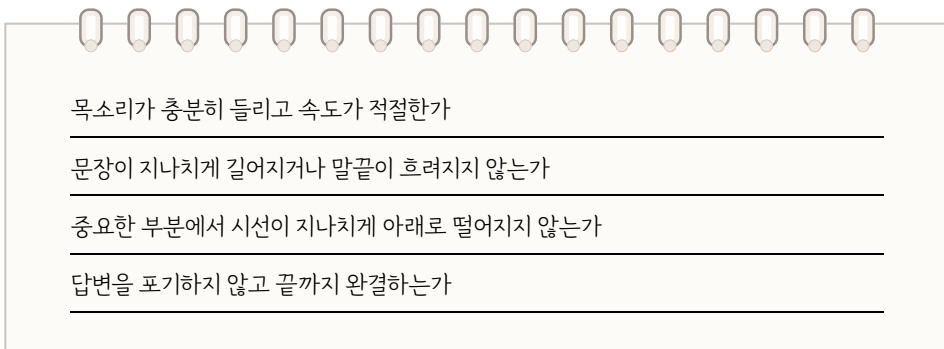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았는가

근거와 결론이 연결되는가

서로 다른 판단 차원을 검토하고 반대 요소도 고려했는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태도에서는 답변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고 속도가 적절한가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말끝이 흐려지지 않는가

중요한 부분에서 시선이 지나치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답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결하는가

질문에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만 답했다면 발성보다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쳐야 합니다. 반대로 판단은 잘했지만 목소리가 작아 전달되지 않았다면 발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뒤 시간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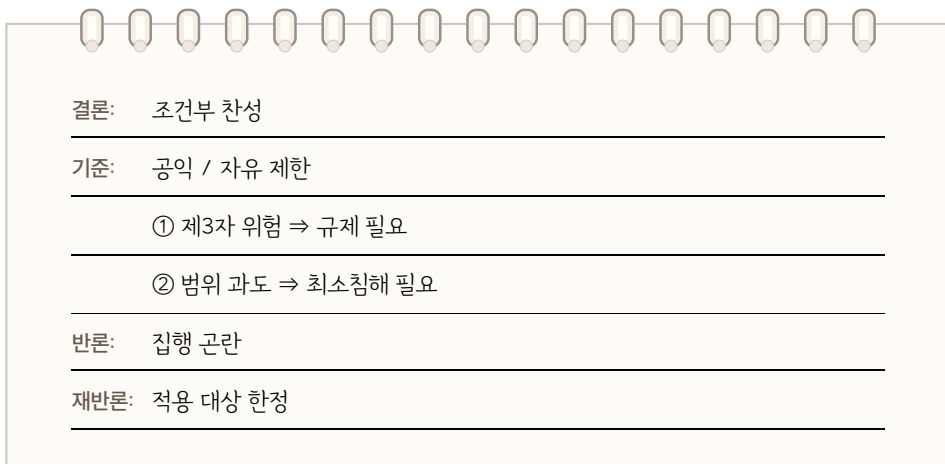
연습 초기부터 시간을 짧게 제한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고를 서둘러 반복하게 됩니다. 비교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먼저 떠오른 장단점을 나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사용하여 질문의 요구를 확인하고, 판단할 내용을 나누고, 기준과 근거를 정한 뒤 반대 요소까지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한 문제에 1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 순서가 익숙해진 다음 5분, 3분으로 줄이며 실제 준비시간에 맞춥니다. LEET 준비에서도 다루었듯이 시간은 익숙하지 않은 판단을 서두른다고 줄

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고를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고민과 되돌아가는 과정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준비지에 판단의 구조 적기

실전 연습에서는 준비시간에 모든 문장을 적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쓰는 데 집중하면 판단할 시간이 줄어들고, 답변할 때도 준비지의 표현을 읽으려 하기 쉽습니다. 다음처럼 **결론과 기준, 근거, 반론에 대한 판단만 적고** 실제 문장은 말하면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건부 찬성

기준: 공익 / 자유 제한

① 제3자 위험 ⇒ 규제 필요

② 범위 과도 ⇒ 최소침해 필요

반론: 집행 곤란

재반론: 적용 대상 한정

준비지는 이미 만든 사고의 순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구조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준비한 문구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답변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의 설명과 예시에 의존하더라도, 익숙해질수록 스스로 답하고 녹음을 확인하여 수정하는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책을 보지 않고도 처음 보는 질문의 요구를 나누고, 기준을 세워 답한 뒤, 반론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반복할 것은 예시의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만드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이제 각 장에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01

면접관의 눈과 평가의 세 가지 차원



The
LEET
BIBLE™

“

면접이 막막한 까닭은
아는 것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말할지
그 사고체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1 장

면접관의 눈과 평가의 세 가지 차원

The LEET BIBLE

1 면접 준비의 어려움과 훈련의 방향

자기소개서는 문장을 써 놓고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됩니다.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칠 수 있고, 논리가 어색하면 문단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나중에 덜어 낼 수 있고, 마지막 문장까지 쓴 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는 제출하기 전까지 여러 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한 문장을 잘못 썼다고 해서 그 문장이 곧바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에서는 생각한 결과와 제출되는 결과 사이에 수정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면접은 다릅니다. 질문을 들은 직후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을 정리해야 하며, 그것을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은 다시 지울 수 없습니다. 첫 문장을 잘못 시작했다고 해서 삭제한 뒤 다시 처음부터 답할 수도 없고, 답변 중간에 논리가 꼬였다고 해서 앞 문장으로 돌아가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대체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만면 면접에서는 이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들으며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준비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말을 시작한 뒤에는 현재의 문장을 끝내면서 동시에 다음 문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억하고 관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면접에서는 사고와 표현과 수정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좋은 판단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상대방이 따라갈 수 있는 순서로 말할 수 있는가

면접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 생각을 말로 꺼내는 일

처음 면접을 연습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어려움은 **‘말하는 일’ 자체**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잘 설명한다고 여겼던 사람도 평가받는 자리에서는 첫 문장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질문을 듣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관련된 사례나 사회적 가치가 떠오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그 생각들이 하나의 답변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 판단이 함께 떠오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입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가산점의 폭이 크다면 다른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출발선의 차이를 보정하기 어렵다.

- 누구를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 입시 단계의 가산점보다 교육 기회 자체를 보완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생각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틀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답변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말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오기 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시에서는 능력주의도 중요하고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반드시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문장을 따로 떼어 놓으면 크게 이상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들으면 이 사람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와 개인의 성취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둘을 조정할 것인지, 역차별의 문제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로 보는지 아니면 가산점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보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산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보는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답변이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니다.

면접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가 더 자주 문제

면접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낯선 질문을 받으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상태**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평가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하면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반대 입장을 덧붙이면 균형 잡힌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법적인 관점까지 보태면 답변이 더 깊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많이 넣는다고 답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가 늘어날수록 무엇이 핵심 주장이고 무엇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소개하고도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하지 않거나, 예외를 언급하면서 그 예외가 자신의 결론을 어디까지 바

꾸는지는 설명하지 않는 식입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떠오른 생각을 모두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뒤로 미루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선택이 이루어진 뒤에야 여러 생각이 하나의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기 쉽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시사 상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문장이 꼬이면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적인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면 법학 지식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 쟁점을 정리하고, 주제별 찬반 논거를 모으고, 예상 질문마다 모범 답안을 만들어 외우는 식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부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실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제도와 쟁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법학적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판단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 역시 필요합니다. 글로 읽을 때에는 자연스러웠던 문장이 실제로 말해 보면 지나치게 길 수 있고, 준비할 때 분명했던 결론이 발화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식도 필요하고, 실제로 소리 내어 답해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앞서, 공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식은 재료, 말하기는 전달의 요소

면접 준비의 요소를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사 지식과 법학 지식은 답변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말하기 연습은 만들어진 판단을 실제 발화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재료를 모으고 전달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답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재료를 어떤 순서와 관계로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판단의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 재료를 어떤 순서와 논리로 사용할 것인가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고, 효율성도 알고 있으며, 최소침해라는 법적 사고와 관련 해외 사례까지 알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자신의 결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지 정하지 못하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더 붙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도 같습니다.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답변을 반복하면 말투는 자연스러워지고 긴장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의 구조까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를 차례로 말한 뒤 다시 다른 사례를 덧붙이고, 마지막에 양쪽 모두 중요하다는 말로 끝내는 답변을 반복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백 번을 연습하면 이전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에서는 단순히 많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답변의 전체적 구조가 잘 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해 보라”는 조언보다, 현실적으로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반복보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기

겉으로는 모두 ‘답변을 잘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결론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린다면 답변의 배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근거를 말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근거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답했다면 발문의 요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비교하라는 질문에서 두 대상의 장단점만 따로 설명했다면 공통된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면 지식을 보완해야 하고, 생각은 정리되어 있는데도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말끝이 계속 흐려진다면 발화 자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듯, 원인이 다르면 고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답변이 무너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은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가 분명할 때 비로소 훈련이 됩니다. 잘못된 답변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점을 찾아 고친 뒤 그 방식을 점점 더 짧은 시간 안에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앞으로의 면접 연습은 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반복은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분명할 때 비로소 훈련이 됩니다. The LEET BIBLE에서 강조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의 ‘정답’을 미리 만들 수 없는 까닭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정답을 하나씩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답변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형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질문과 ‘사형제도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은 같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요구하는 사고는 다릅니다. 사형제

도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를 묻는다면 폐지 이후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고, 사형과 다른 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을 비교할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같더라도 질문의 형태가 달라지면 무엇을 골라 어떤 순서로 말할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각 개별 질문에 대한 정답의 목록이 아니라, **질문이 달라져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질문이 달라져도 일정하게 작동하는 사고의 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무엇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그 기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결론을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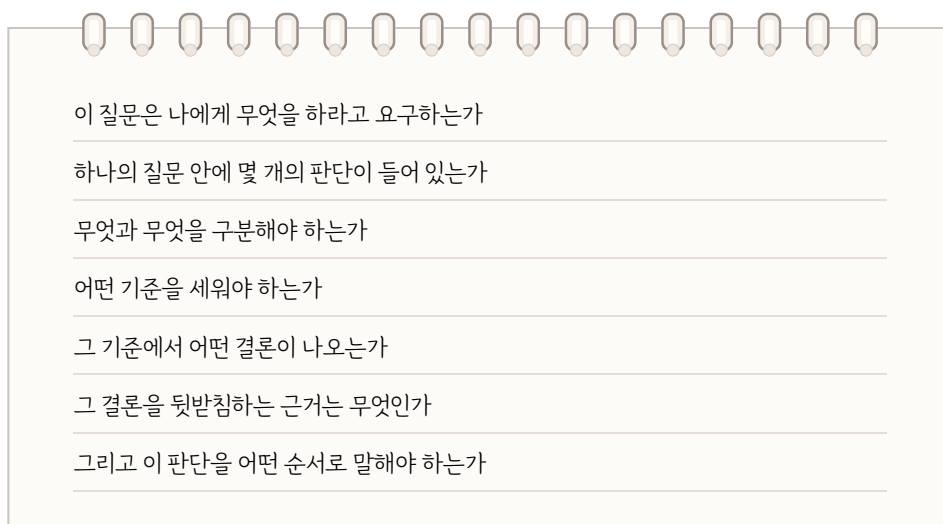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무슨 말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 질문이 요구하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 뒤에야 자신의 결론과 필요한 근거를 꺼내고, 이를 상대방이 따라갈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합니다. 이 순서가 만들어지면 면접은 조금 다른 시험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처음 보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에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큼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은 곧바로 답변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고가 멈춥니다. 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지?’라고 물으면 아직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구를 확인하고, 쟁점을 나누고, 판단기준을 정한 뒤 필요한 재료를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이렇듯, **면접에서의 안정성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질문을 만나더라도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주제의 수는 계속 늘릴 수 있지만, 질문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정한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LEET에서 낯선 지문과 문제를 처리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지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내용이라도 발문이 요구하는 작업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대응합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자체를 아는 것보다 먼저 지금 주어진 질문이 어떤 작업을 요구하는지를 읽어 내야 합니다.

질문의 소재는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과 노동이 나올 수도 있고, 형사정책이나 표현의 자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개인정보처럼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처음부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달라져도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본서에서 연습하려는 것도 바로 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의 확실된 사고의 틀을 꺼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EET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나의 질문 안에 몇 개의 판단이 들어 있는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그 기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판단을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가

시사 지식이나 법학적 개념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필요한 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틀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조가 잡혀 있으면 새로운 지식은 답변에 들어갈 재료가 되고, 법학적 개념도 판단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말하기 연습 역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도 이 순서를 따르고, 이 질문들이 본서 전반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The LEET BIBLE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의 주제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 펼쳐야 하는 틀은 동일합니다.